

2022. 4. 5.

주요 투자은행의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전망 (2022.3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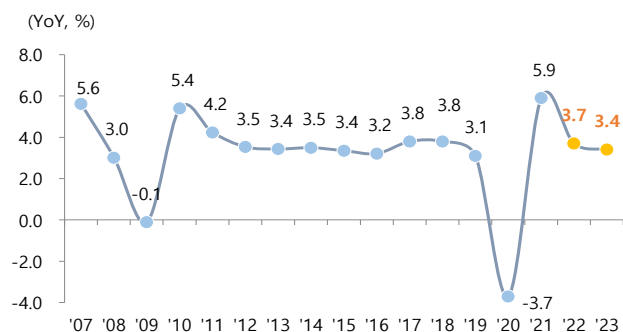
박미정 | 부전문위원 외(3705-6210)

- **세계(-0.6%p ↓):** 라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中 코로나 재확산 조짐으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물가 상승(21년 4.7%→'22년 상반기 6.5%, JPM)에 대응한 각국의 본격적인 통화긴축으로 전세계 성장이 예상보다 둔화될 전망
 - **미국(-0.3%p ↓):** 글로벌 경기둔화, 에너지·식료품 가격 급등에 따른 구매력 약화, 통화긴축 가속화로 경기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고용지표 호조 속에 5, 6월 FOMC에서는 50bp 인상 전망이 우세하며 임금상승세 지속 시 인상폭(3월 점도표, '23년까지 약 3%p) 확대 불가피(Barclays, Citi, JPM)
 - **유로존(-1.1%p ↓):**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물가 급등(3월 7.5%), 소비심리 위축 등 부정적 영향 가시화. 가스 공급 10% 감소 시 유로존 성장률 70bp 추가 둔화 예상(Barclays)
 - 러-우 전쟁 여파로 소비자 물가(y/y) 전망은 2·3분기 각각 7.3%→7.9%, 6.8%→7.8%로 상향 조정. 빠르면 9월부터 정책금리가 인상될 것이며 '23년까지 총 6회(회당 0.25%p씩 총 1.5%p) 인상될 소지(JPM)
 - **중국(-0.1%p ↓):** 최근 오미크론 급증에 따른 상하이 봉쇄조치로 상반기 성장률 -10bp 둔화 추정. 여타 지방정부로의 코로나 확산 시 생산 및 물류 차질, 수요 감소에 따른 성장 약화 불가피(Barclays)
 - **일본(-0.7%p ↓):** 방역규제 해제로 2분기 성장률은 반등하겠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에너지·식료품 가격 상승, 엔저로 인한 수입물가 급등, 미·중 경기악화 등 하반기 하방리스크 상존(Nomura)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기관명	2022 ^f	2023 ^f
Barclays	3.3	3.4
BNP Paribas	4.8	3.8
BoA-ML	3.6	3.3
Citi	3.3	3.1
Goldman Sachs	3.2	3.4
JP Morgan	3.8	3.5
Nomura	3.8	3.3
Societe Generale	3.7	3.6
UBS	3.6	3.4
평균	3.7(-0.6)	3.4(-0.1)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 전년 대비, 구매력평가(PPP)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각각 전월 전망치 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 대비 변화분(%p)



KCIF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2 ^f	2023 ^f
	22.1Q	22.2Q	22.3Q	22.4Q		
Barclays	1.5	3.5	3.0	2.5	3.5	2.3
BNP Paribas	-	-	-	-	3.7	2.5
BoA-ML	1.0	3.5	2.5	1.8	3.3	1.8
Citi	1.3	2.8	2.7	2.2	3.3	2.1
Goldman Sachs	0.5	2.3	2.8	2.3	3.0	2.2
JP Morgan	0.5	3.3	3.5	2.5	3.3	2.3
Nomura	1.0	4.0	3.5	1.3	3.5	1.3
Societe Generale	0.9	3.5	1.9	1.9	3.2	2.5
UBS	1.9	2.5	3.0	2.9	3.5	2.4
평균	1.1(-0.9)	3.2(-0.5)	2.9(-0.3)	2.2(-0.2)	3.4(-0.3)	2.2(-0.1)

*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2 ^f	2023 ^f
	22.1Q	22.2Q	22.3Q	22.4Q		
Barclays	0.6	0.3	1.4	2.1	2.4	2.1
BNP Paribas	-	-	-	-	2.8	2.7
BoA-ML	2.2	0.6	0.9	1.9	2.8	1.7
Citi	0.5	0.5	0.9	1.3	2.3	2.6
Goldman Sachs	0.7	-0.2	2.3	3.2	2.5	2.2
JP Morgan	-0.3	2.3	3.0	2.8	2.8	2.8
Nomura	0.8	1.6	1.2	1.2	2.6	1.4
Societe Generale	2.2	1.2	2.2	2.2	3.1	2.1
UBS	0.5	2.2	2.7	2.5	2.9	2.2
평균	0.9(-0.6)	1.1(-3.8)	1.8(-1.6)	2.2(-0.5)	2.7(-1.1)	2.2(-0.3)

*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2 ^f	2023 ^f
	22.1Q	22.2Q	22.3Q	22.4Q		
Barclays	4.9	4.3	4.9	4.1	4.5	5.3
BNP Paribas	-	-	-	-	4.9	5.5
BoA-ML	(3.9)	(5.0)	(4.8)	(5.2)	4.8	4.8
Citi	3.8	4.3	4.8	5.7	4.7	4.8
Goldman Sachs	4.0	4.0	5.2	4.8	4.5	5.0
JP Morgan	(4.9)	(5.7)	(6.6)	(5.5)	4.9	5.4
Nomura	2.9	3.8	5.1	5.1	4.3	4.7
Societe Generale	3.6	3.6	5.0	4.8	4.3	5.8
UBS	4.5	4.7	5.6	5.1	5.0	5.2
평균	4(0)	4.1(-0.4)	5.1(-0.1)	4.9(-0.2)	4.7(-0.1)	5.2(0.1)

* 분기별 전망은 전년동기대비, ()는 전기대비 연율. 평균은 전기비연율 값을 제외하고 계산.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평균의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2 ^f	2023 ^f
	22.1Q	22.2Q	22.3Q	22.4Q		
Barclays	-0.1	6.0	4.8	1.7	2.4	1.9
BNP Paribas	-	-	-	-	1.6	2.0
BoA-ML	-1.2	8.3	3.9	0.8	2.4	1.5
Citi	-0.2	5.7	2.5	2.1	2.1	2.1
Goldman Sachs	-1.1	3.6	2.6	1.9	1.5	1.8
JP Morgan	-1.8	5.0	3.5	2.5	1.7	1.8
Nomura	-3.1	11.5	3.2	3.2	2.5	2.7
Societe Generale	-0.3	4.3	2.9	1.9	1.8	1.9
UBS	-0.8	7.5	4.5	2.1	2.5	1.6
평균	-1.1(-1.9)	6.5(-0.2)	3.5(-0.1)	2(0.3)	2.1(-0.7)	1.9(0.1)

*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53 혹은 shhong@kcif.or.kr, 홈페이지: www.kcif.or.kr